

부산의 남북교류



2003년 안상영 전 부산광역시장 방북

부산광역시-북측 전국 최초로 경제협력을 논의하다

안상영 전 부산광역시장을 비롯한 부산 남북 교류협력단 33명은 북측 민족화해협의회(이하 북측 민화협)의 초청으로 2003년 9월 26일부터 30일까지 4박 5일 동안 평양을 방문했다.

북측 민화협에서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에 참가한 북측선수단 및 응원단 환대에 대한 감사인사 차원으로 당시 안상영 시장의 방북은 부산광역시장으로서의 첫 북측 방문이자 북측과 남측 지방자치단체간의 첫 번째 교류협력 사례로, 이후 강원도지사와 광주광역시장의 북녘 방문에 시금석이 됐다.

당시 안상영 전 부산광역시장은 신발, 섬유, 조선, 수산, 항만 건설 등 5개 분야의 경제교류 협력 사업을 추진키로 하는 '경제교류협력의향서'를 교환하고, 문화 체육 분야 교류협력 확대 방안도 마련했다.

의향서에는 양측 교류협력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규모, 향후 추진일정 등을 명시했으나, 안상영 시장의 급작스런 서거로 그 뜻이 이어지지 못해 아쉬움이 남는다.

장선이 기자
jang_sun_ei@naver.com



▲ 아리랑응원단이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에 참가한 북측 축구대표팀을 응원하고 있다.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

南과 北 하나가 된 순간

“통~일조국”을 외치다

2002년 9월 24일 제14회 아시안게임 개회식이 열린 부산 아시아드 주경기장. 남북 공동기수 황보성일과 리정희의 뒤를 이은 선수단이 서로 손에 손 잡고 그라운드에서 들어서는 순간 스탠드를 가득 메운 관중석에서 “통~일조국” 함성이 메아리쳤다.

분단 이후 남측에서 열린 국제대회에 북측이 처음으로 대규모 선수단을 파견했다. 특히 북측대표단과 함께 온 '미너 응원단'은 두고두고 회자될 만큼 남측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다. 당시 북측응원단은 다대포항을 통해 부산에 도착했다. 그들은 부산에 머무는 18일 동안 다채로운 응원, 부채춤 공연 등을 펼치며 통일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었고, 우리가 같은 민족이라는 사실을 상기시키며 북측에 대한 경직된 시각을 전환시킨 것은 물론, 북측의 적대적이고 폐쇄적인 이미지를 평화적이고 개방적인 이미지로 바꾸어 내는 데 큰 역할을 담당했다.

한편, 남측사람들도 이에 호응하여 북측응원단이 가는 곳 마다 환대하며 민족애를 나눴다. 스포츠를 통해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자는 취지를 담아 민간단체에서 '아리랑 응원단'을 만들었다. 이들은 경기장에서 직접 단일기를 나눠주고 관객들의 응원을 유도하면서 북측응원단과의 자연스런 공동응원을 만들어 냈고, 이들의 노력으로 아시안 게임 경기장 곳곳에서는 남북공동응원 열풍이 불었다.

북측과 파키스탄 남자축구 예선전에서는 북측응원단이 “잘한다, 잘한다, 우리 선수 잘한다”라고 외치면 아리랑응원단은 “짜짜 짜짜짜” 다섯 번 손뼉을 치는 경쾌한 월드컵 박수로 화답하는 등 양측은 “통~일조국”을 합창하면서 통일의 열망을 발산해냈다. 공동응원의 백미는 파도타기 응원. 양측 응원단이 후반전부터 시작한 파도타기는 경기가 끝날 때까지 계속됐으며 북측 응원단도 흰색 유니폼으로 파도를 일으켰다.

남북의 정한 만남과 응원은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고, 2002년 월드컵 직후에 개최된 부산 아시안게임의 흥행 걱정을 일거에 가시게 했다.

김경희 기자
rudgml6650@nate.com

2007년 부산광역시 북녘 수해 복구 지원

동포돕기에 적극 나서

지난 2007년 9월, 부산광역시는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북녘 동포들을 돕기 위해 수해 복구 지원 물자를 보냈다. 당시 북측은 평양을 비롯한 강원, 평안, 함경도 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40년 만에 최악의 수해가 발생하여 큰 피해를 입은 상황이었고, 부산광역시는 북측의 긴급한 재난상황을 접한 직후, 북측 민족화해협의회와 직접 협의를 통해 수해복구물자를 지원하기로 결정한 뒤 발 빠르게 추진하였다.

당시 개성공단에서 육로를 통해 북측으로 전해진 지원 물자는 밀가루 990포대, 시멘트 1,800포대, 철근 112톤 등 대형트럭 8대 분량으로, 소요액은 약 1억원에 달했다. 허남식 부산광역시장은 “민족 간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부산시민들의 인도주의적인 정신이 북측 주민들에게 의미 있게 다가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수해복구지원사업의 의미를 높이 평가했다. 한편 부산광역시 약사회와 ‘겨레사랑 약사모임’에서도 2,000만원 정도의 약품을 함께 보내 부산시민들의 인도적 동포애를 더욱 빛나게 했다.

2007년 이전에도 부산광역시는 지속적으로 북측과의 교류를 진행했다. 2003년 경제협력단 방문 및 부산국제영화제 북측 작품 상영, 2004년 통천역 폭발사고 의약품 지원, 2007년 평양항생제공장 건립 등이 그것이다.

2007년에는 부산광역시의회에서 대북교류협력사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조례를 제정했고, 부산광역시에서는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구성하기도 했다.

임우빈 기자
lipsae012@naver.com



▲ 부산광역시가 지원한 북녘수해복구지원물자가 평양으로 출발하고 있다.